

기억과 전망

Memory & Vision

2011년 겨울호(통권 25호)

아렌트가 말했듯이,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한정된 우리 인간이 영원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기억'을 통해서이다. 그러나 저마다 기억은 사뭇 달라서 어떤 이는 이승만과 박정희의 시대가 새로운 시작이며 발전의 정신이었다고 기억하고, 어떤 이는 그것이 전혀 새롭지 않은 타협의 지속이자 굴종의 시간이었다고 기억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다시금 목도하는 이 기억의 싸움은 결국 과거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공유해야 할 시대정신이 무엇이나를 둘러싼 것이라는 점에서 많은 고민을 던져준다.

지금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들의 삶을 묶어주고 설명해 왔던 틀이 무너져가는 현실에 처해 있다. 계속되는 불황과 금융위기, 장기적인 실업과 악화된 분배구조로 인해 효율성의 신화는 무너지고 자본주의라는 틀은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또한 지난세기 제국의 식민지 지배에 의해, 그리고 오늘날 가속화된 노동력의 세계적 이동과 이주로 인해 이제까지 분명했던 민족 국가의 경계도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그리고 더욱 근본적으로는 지난 한 세기가 넘게 의회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대의 민주주의라는 틀이 지금의 갈등을 해결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부당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더 이상 자신의 지역구 의원을 찾아가지 않고 청계천과 시청에, 뉴욕의 월스트리트에 모인 사람들, 더 이상 공공 방송을 듣지 않고 사사롭게 협동하여 만든 통로에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처한 시대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준다.

이제까지의 것들은 낡은 것으로 의심되고 그러나 아직 어떤 것도 분명한 것은 없는 시대, 그리하여 의심과 불안으로 동요하는 시대, 지금의 시대는 역사적 이행기에 처해 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거의 매뉴얼을 ‘성실히’ 따르는 데 있지 않고 새로운 가치, 새로운 교류관계, 새로운 정치의 패러다임과 매뉴얼을 모색하고 실험하며 논의하는 데 놓여 있다.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한 여러 고민과 상상들… 이번 호의 특집인 “환경과 민주주의”는 바로 이러한 시도의 첫 걸음이다.

먼저 구도완은 한국의 환경운동 사례 분석을 통해 공론장이 열려 있으면 동강 댐 사례와 같이 지혜롭게 생태문제를 해결했으며 민주주의가 후퇴하면 환경정책도 후퇴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생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발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새만금과 한탄강 댐 사례처럼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그 자체로 생태적 해결을 담보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미래의 민주주의는 인간의 효용성을 중심으로 하는 틀을 넘어 생태적 관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승철은 가타리의 마음생태, 사회생태, 자연생태라는 주체성 생산의 논의를 통해 생태 민주주의의 구도와 방향을 제안한다. 생태적 관점의 주체성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태 영성과 더불어 사회적 배치의 변화에 따른 집단적 주체성 형성,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과제로 제출한다. 노진철은 위험사회에서의 정치적 결정을 분석하면서, 독일이나 스위스 이탈리아와 같이 협의제 민주주의를 택한 국가들은 핵 감축과 함께 신재생에너지로 정책을 전환하는 데 반해, 국가통치력이 강한 프랑스, 한국, 러시아, 중국, 인도, 중동과 같은 나라는 오히려 핵 발전 시장에 전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을 통제한다는 위험사회의 화두는 후쿠시마의 핵 발전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예상치 못한 새로운 위험에 직면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일반논문들은 해방 이후 역사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재구성함으로써 오

늘날의 지배체제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어떤 역사적 연속성을 가지는지 밝히고 있다. 강성현은 1945년에서 50년까지의 역사에서 한국 공안검찰의 역사적 형성을 추적한다. 해방 이후 식민지 사상검찰은 주한미군정에 의해 붕괴되었지만, 정부수립 이후 국가보안법의 성립은 다시금 사상검찰을 재 조직화하고 검찰권을 강화하는 토대가 되었으며 1949년 '반공사법'의 주축이 되었다는 것이다. 김상숙은 1946년 10월 대구항쟁에서 경북 영천 지역의 항쟁을 농민항쟁의 측면에서 해석한다. 영천항쟁은 특정한 계급의 틀을 넘어 다양한 전선을 형성하였으며 항쟁의 주도적인 참여인사와 선봉대가 조선 후기에 발생했던 농민항쟁의 '향회'나 '초군(나무꾼)' 조직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다고 분석함으로써, 영천항쟁 속에 농민들이 수행했던 전통적인 항쟁의 경험들이 전승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경희는 1987년 창립된 한국여성민우회 운동이 연속될 수 있었던 조건을 그 운동의 집합적 정체성에서 찾고 있다. 민우회 운동의 연속성을 가능하게 한 것은 진보성과 대중성이었으며, 그것은 민우회운동이 '생활정치'를 실천해왔기 때문이라 분석한다. 다시 말해, 그 운동이 지속될 수 있었던 까닭이 삶과 연관된 의제들에서 불평등의 지형을 파악해내고 그 변화를 모색한 '생활정치'에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향후 우리 사회에서 진보적 사회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실천적 전략에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스티븐 정은 그간 권위주의 권력을 대변했다고 비판받아온 신상옥의 계몽 영화 '상록수(1961)'와 '쌀(1963)'을 개발주의 미학으로 재해석한다. 신상옥의 작품들은 평등주의적 '브나로드' 운동과 국가주도적 프로젝트를 동등한 방식으로 상기시킴으로써 표면상으로는 반대되는 이념을 가로지르는 횡단의 미학을 수행한다는 분석이다. 모하마드 엘-사예드 셀림은 아랍 민주화운동의 물결의 배경을 분석하고 향후 동향을 전망하면서 한국의 역할까지 시의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번 호 “기억과 증언”에서는 필자 이영미가 겪은 1980, 90년대 음반법과 노래 검열에 대한 체험이 실렸다. 이영미는 당시의 검열이 맥락

의 변화에 따라 복잡한 변수와 총체적인 효과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기억함으로써, 노래 검열과 노래 통제가 단순히 음반법의 심의조항에 의해서 뿐 아니라 그것의 생산과 판매 과정에 대한 세세한 규정 전체를 통해 규제되고 통제되었음을 증언한다. 끝으로 허은은 『지역에서의 4월혁명』(정근식·권형택 엮음, 2010, 선인)을 소개하면서 4월혁명에서 지역연구의 중요성을 짚어낸다.

이번 호의 글들은 우리 사회에서 지배와 통제가 보다 복합적인 규제의 메커니즘을 가진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또한 우리 사회의 사법검찰이라는 지배체제와 민주 항쟁이 가진 보다 뿌리 깊은 역사적 근원을 상기시켜 주는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집필에 참여해주신 모든 필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다가오는 2012년은 87년 체제를 변화시키는 정치적 운동의 출발이자, 보다 근본적인 안목에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와 국가가 가져왔던 틀을 다시금 바라보아야 하는 때이다. 좌표가 사라지고 의심되는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인간은 성실하게 답하는 인간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인간이며 새롭게 도전하는 인간이다. 앞으로도 『기억과 전망』은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과거의 민주주의 운동을 새롭게 기억해내고 환기시켜 갈 것이며, 나아가 민주주의를 보다 긴 안목에서 보다 넓게 확장해 가는 데, 그리하여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작'을 모색하는 데 정성을 다할 것이다. ~~2012~~

2011년 12월 편집위원 박주원

